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최지혜	소속(학부/과)	신소재공학부
파견 학기	2018년 2학기~2019년 1학기		파견 국가	미국
파견 대학	네바다주립대학교(UNLV)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생일 때 사촌오빠가 교환학생을 가서 처음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오빠가 교환학생을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나도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서 교환학생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교환학생에 지원하였고 미국의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저의 전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연구실인턴에 지원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다른 나라에 혼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첫 학생이었던 만큼 대부분 스스로 알아보며 혼자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UNLV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재근 선생님께서 여러 부분 많이 도와주셔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학교 준비서류에는 영문통장잔고 확인서, 영문 성적증명서, 영문 이력서,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 등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비자도 처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학교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서류도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도 비교적 쉬워 결과적으로는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권은 교환학생에 합격하고 바로 저렴할 때 사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숙사 신청 중 저의 실수로 선불금을 늦게 내서 대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학교 주변 셰어하우스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숙사 신청을 하신다면 여러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제가 다녔던 네바다 주립대학교는 주립대학교인 만큼 크기가 우리학교에 비교하면 훨씬 큼니다. 유심칩을 가서 살 생각이면 가기 전 학교지도를 프린트를 해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리적 위치는 공항도 가깝고 주변에 큰 마트, 아시안 마트가 있고 메인 스트리트와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기후는 사막이 만큼 항상 매우 덥고 엄청 건조합니다. 수분크림과 선크림을 넉넉하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7월 8월경은 엄청나게 건조하고 햇빛이 강합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첫 학기에는 제가 욕심을 부리고 수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신청하였기 때문에 전공수업 하나와 영어수업 하나를 들었습니다.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 전공수업은 당연히 어렵고 영어수업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고 과제가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첫 학기를 오히려 알차게 보냈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인턴은 각 연구실마다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라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연구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마다 미팅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연구한 내용을 각자 피피티를 만들어 와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생이지만 그 미팅에 바로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피티 준비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너무 떨리고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더 실질적으로 영어공부에 물론 도움이 되었고 전공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분이셨고 그래서 더욱더 공감대가 많았고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분이지만 저와 같이 프로젝트를 한 학생들과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팅도 영어로 진행되었고 연구를 할 때도 영어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기 때는 연구실도 많이 바꿨고 수업도 2개나 뿔뿔하게 들어 전공공부에 집중했었다면 두 번째 학기에는 제가 하던 프로젝트도 거의 끝나가고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도 엄청 바쁜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학교수업도 영어수업 한 개만 들었기 때문에 영어공부에 더 집중하고 거기서 사귀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저희가 인턴이어서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팀원들과 교수님께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무엇보다 생각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저의 실수로 자취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룸메이트를 너무 잘 만나서 더 좋았습니다. 제가 거주한곳은 학생아파트 Reble Place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각자 개인화장실이 따로 방에 있고 학교로 가는 셔틀버스가 30분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서 대부분 여행경비로 많이 나갔는데 여행을 빼면 저는 밥도 대부분 집에서 해먹었고 셔틀도 있어서 큰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저희는 교환학생으로 단기간만 그곳에서 머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곳의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교환학생 담당 부서에서 하는 Social meet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여러 나라 학생과 그 부서에서 근로를 하는 학생들이 만나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 여러 쇼를 더 즐길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부대시설 중 체육관을 정말 추천합니다. 네바다주립대학교는 체육관이 정말 넓는데 수영장, 헬스장뿐만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 힙합 댄스 등 각종 스포츠 수업을 제공합니다. 정해진 학점 이상 들으면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학점만큼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ICF라고 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이란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들어 갈수 있었고 세계 각 나라 사람들과 여러 축제도 가고 같이 모여 게임도 함으로써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어울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딱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이것 선택한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가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등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문화를 접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저의 선택이 옳은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있으면 항상 놀던 친구랑 놀고 만나던 사람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행도 많이 가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마음 잘 맞고 좋은 사람도 있었고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